

# 경영저널

인터넷신문 [www.경영저널.com](http://www.경영저널.com)



## COVER STORY 박승호 포항시장

도약하는 포항 동진대항, 세계 4대 미항으로 거듭나다

News Wide 시대면세점 지역경제활성화 기폭제 될까?

Hot Issue 남부권 신평항 다시 날개 편다

우리지역 유망기업 (주)아이엠샘넷

Dream Interview 손창용 대구시의사회 기획이사

초대석 한창현 대구시비료토합회 부회장 겸 전무이사

음식평가 자연산 블락세피씨·해산물전문점 '쌍쌍회'

# 월간 경영저널 포털사이트와 동반성장할 쇼핑몰 입점 희망업체를 모집합니다!

월간 경영저널이 올해 하반기 정보와 뉴스, 쇼핑몰을 결합한

**영남권 최대 포털사이트**를 오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경제계 뉴스, 각계각층의 인터뷰, 부동산과 경매 정보 등이 망라되고,  
영남지역의 농특산물과 특화된 지역기업체의 제품을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역량이 필요한 회사,  
제품 판매 경로를 확대하고자 하는 회사,  
좋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셀링파워가 약한 회사,  
웰빙 트렌드에 맞는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모두 입점이 가능합니다.

쇼핑몰 입점 업체에는 전문가 경영 컨설팅과 온·오프라인 홍보 등  
**원스톱 서비스 혜택**을 드립니다.

쇼핑몰 입점 문의 : 전 화 **053-766-1368**  
이메일 [k\\_journal@daum.net](mailto:k_journal@daum.net)



경제·정책 전문매거진

**경영저널**

경영저널

Open







12

07

## 청호(靑湖)칼럼

이진구 | 경영저널 대표이사 · 발행인

08

## Cover Story

박승호 포항시장

대한민국 최초 인성도시, 영일만 르네상스를 향해 달린다

12

## 도약하는 포항

동빈내항, 세계 4대 미항으로 거듭난다

15

## 포항의 명소

대한민국 해맞이 1번지 호미곶, 경북 동해안 최대 규모 죽도시장

17

## 포항의 특산물

겨울철 최고 진미 구룡포 과메기

18

## 지방자치단체 정책탐구 I

야구장 건립을 통한 문화 인프라 확충,  
대구시민의 삶의 질 높인다!

20

## News Wide

시내면세점 지역경제활성화 기폭제 될까?

24

## 정치평론\_ 爐邊政談

민주당 혁신의 길

26

## Hot Issue

남부권 신공항 다시 날개 편다



08



17



26



세계속의 울릉,  
명품 녹색 관광섬 조성!

癸巳年

“새해福 많이 받으세요.”

1. 미래를 위한 녹색개발
2. 감동을 주는 명품관광
3.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4. 군민이 행복한 복지행정



울릉군  
[www.ulleung.go.kr](http://www.ulleung.go.kr)



- 31**    **법령과 해석**  
가사소송의 전속관할
- 32**    **지방자치단체 정책탐구II**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 방향
- 35**    **칭찬합시다**  
이성칠 구미시청 체육진흥과장
- 36**    **지역경제 동향분석**  
지역 중소기업들, 유통법 개정안에 실망만 가득
- 39**    **지방자치단체 정책탐구III**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을 통한 지역 문화재의 재탄생
- 42**    **우리지역 유망기업**  
지역 MICE산업의 새로운 리더, (주)아이엠샘넷
- 44**    **Dream Interview**  
손창용 대구시의사회 기획이사
- 46**    **초대석**  
한창헌 대구시태권도협회 부회장 겸 전무이사
- 48**    **음식명가**  
자연산 불락세꼬시 · 해산물전문점 '싱싱회'
- 51**    **지역소식**



## 경영저널 통권 제42호

**발행인·인쇄인** 이진구  
**편집장** 백재호  
**취재** 배준수  
**사진** 김원현  
**편집디자인** 임선정  
**편집위원** 홍순대, 손지강, 이광희  
장승욱, 민경량, 이포상  
**인쇄처** 신희인쇄  
**발행처** www.경영저널.com  
**본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경북본부**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427-6번지 203호  
**대표전화** 대구 053766-1368 FAX 054766-1356  
안동 054823-2828 FAX 054823-2827  
**등록번호** 대구라07691  
**창간** 2007년 11월 5일  
(등록일자 2011년 3월 22일)  
**구독 및 광고문의** 053766-1368

###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연 48,000원  
정가: 5,000원  
이금수: (주)경영저널  
대구은행 225-12-003611  
국민은행 6983301034034744  
\*입금 후 정기구독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주세요. 053766-1368

본지는 반고간행물인 경우 원해 신문요리경쟁 및 월간지 실선요건을 준수합니다. 독자에 게제된 시지 및 기사 저작권은 독자에 있으며 사전허가 없이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 10포인트)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대구·경북 시·도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706-84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경영저널 편집 제작국 독자 기고팀 담당자 앞  
이메일 k\_journal@daum.net  
전화 053) 766-1368 FAX 053) 766-1356





Gimcheon 2013

#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The 51th Gyeongbuk Sports Festival

2013. 5.10~5.13

김천종합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

| 성화봉송 | 2013. 5. 9(목)~5.10(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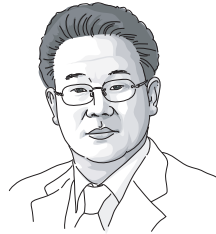
| 개회식 | 2013. 5.10.(금) 17:30

| 폐회식 | 2013. 5.13.(월) 16:30

열등하는 김천에서  
기초는 경북의 꿈!  
이상하는 경북의 꿈!



# 고전 열풍, 삶에 대한 성찰의 계기로 삼자



이진구 | 경영저널 대표이사 · 발행인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동명소설을 영화화 한 ‘레미제라블’ 열풍이 뜨겁다. 그 열기의 진원지는 휴 잭맨 주연의 뮤지컬영화였다. 액션이나 공상과학이 아닌 장르가 500만 관객을 끌어모으는 등 흥행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영화의 인기는 뮤지컬, 연극, 강연을 뛰어넘어 다시 고전 읽기 신드롬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의 코드로 등장한 힐링(치유)과 감동이 필요한 시대에 딱 들어맞은 덕분이다. 19세기 프랑스 민중들의 비참한 삶과 권력의 횡포,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인생, 장발장의 헌신과 사랑, 용서 등의 테마는 팍팍한 삶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픔과 좌절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안과 치유를 안겨다줬다. 흑자는 18대 대통령 선거일에 개봉한 점을 내세워 정권 교체 실패로 좌절을 느낀 사람들에게 힐링을 충족시켜 줬다고 하기도 하고, 용서와 구원,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유, 박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 메시지를 감동적으로 전하면서 제대로 먹혀들었다고도 한다.

어쨌든 영화 레미제라블 열풍을 계기로 고전 다시 읽기가 유행하고 있다. 톨스토이의 동명소설을 영화화 한 ‘안나 카레리나’와 스코트 피츠제럴드의 동명소설을 3D 영화로 만든 ‘위대한 개츠비’ 등이 조만간 스크린을 가득 채우게 될 예정이어서 더더욱 그렇다. 삶에 대한 불안과 동시에 그 삶을 다시 한 번 성찰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겹쳤던 시기에 항상 고전 텍스트는 수백년의 시간을 뛰어 넘어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파급력도 대단하다. 부산 해운대구는 인문학 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해운대 플랜’을 마련해 인문학 고전읽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 실용주의 학문이 득세하는 가운데서도 서울대는 1학년 신입생부터 의무적으로 고전 3권을 읽고 토론을 하도록 했다고 한다.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고전 읽기가 자녀들의 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세계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면서 고전 읽기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 중에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溫故而知新可以爲師矣)’라는 구절이 있다. 고전을 통해 온고지신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삶에 대한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지금, 내면 속에 깊은 울림을 주고,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무엇인가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고, 힘들다고만 여겨지는 삶을 치유하는 원동력이 될 고전을 만나 보자.





## | 포항시장 | 박승호

포항시가 기사년 새해부터 환동해 경제허브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힘찬 날갯짓을 이어가고 있다. 환동해권에 서의 개방과 협력의 시대에 대비해 주도권을 선점하고, 전방위에서 선도적인 협력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올해 형산강과 영일만을 아우르는 동빈내항의 포항운하가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세계적인 미항이자 포항의 랜드마크로 우뚝설 것으로 기대돼 포항이 명실상부한 환동해 경제허브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서 전국 최초로 인성교육 우수도시로 선정된 원동력인 포항의 감사나눔운동은 전국으로 뻗어나가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포항시의 현재와 미래 청사진을 박승호 포항시장으로부터 들어봤다.

**Profile\_**

- 1957년 포항
- 포항고(23회)
- 대한유도학교(현 용인대) 졸
- 한국체육대 대학원 이학박사
- 중국사회과학원 법학박사(헌법학 및 행정법학전공)
- 용인대 명예경제학박사
- 서울올림픽조직위 기획실(공채시험 1기)
-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 봉화군수(36세 전국 최연소)
- 경북도 공무원교육원장
- 한나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
- 민선 4기, 5기 포항시장

# 대한민국 최초 인성도시, 영일만 르네상스를 향해 달린다

**Q** 포항 특산물 홍보 세일즈로 연초를 보내셨습니다.

**A** 경영저널 독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올해의 첫 시작을 호미곶에서 시작해 전국 각지를 돌며 포항을 위한 세일즈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국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시금치(포항초)를 비롯해 구룡포 과메기, 부추 등 ‘영일만 친구’라는 공동브랜드를 붙인 포항의 특산물을 홍보하는데도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많은 포항의 특산물을 알리는 세일즈로 더욱 바쁠 것 같습니다.

**Q** 서민, 행복, 감사(感謝)를 시정 키워드로 정하셨습니다.

**A** 어려운 서민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안방경제’를 먼저 찾아가는 따뜻한 시정으로 행복한 포항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서민들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에 역점을 둘 것이고, 포항시민들의 복지지수와 행복지수를 높여나가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신뢰와 소통의 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저부터 먼저 감사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시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가려 합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경청하고 반영해 시민중심의 진정한 소통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감사나눔운동에 대한 호응이 대단합니다. 운동을 펼친 계기와 성과를 소개해 주십시오.

**A** 지난 2011년 말 우연히 포스코ICT를 방문했다가 감사나눔운동을 접했고, 허남석 대표로부터 감사나눔운동의 효과와 추진방법을 들어 포항시에 접목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 5가지 쓰기(감사노트)와 감사 편지쓰기, 전화나 메시지(SNS)로 감사 표현하기 등을 실천과제로 정해 매일 적극 실천했습니다. 이후 종교적 색채 논란과 정치적 이용이라는 오해도 받았지만, 긍정과 배려, 나눔과 소통의 사회적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자 본래의 취지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성과는 컸습니다. 지난 1월11일 전국 지자체 중 유일



△ 박승호 포항시장(가운데)과 인터뷰 중인 본사 백재호 편집장(왼쪽)과 배준수 취재팀장

하게 포항시가 인성도시로 선정된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이 포항에서 시작됐듯이 감사나눔이라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가 포항이 되는 셈이지요. 특히 포항의 감사나눔운동은 청와대에까지 소개가 됐고, 각급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의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1년도 채 되지 않은 감사나눔운동에 대해 지자체와 기업 등 200여 곳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하루하루 뿔어나가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전국적인 신정신문화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감사나눔대상을 제정하는 등 감사나눔운동을 더욱 전파시켜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Q** '한동해 경제허브 도시 도약 원년 포항 선언'을 하셨습니다.

**A** 철강도시로 국한됐던 포항을 해양문화관광레포츠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함이지요. 이 가운데 'T9 오션 프로젝트' 계획이 그 핵심입니다. 오는 6월 포항운하의 통수를 신호탄으로 T9오션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해 형산강에서 영일만에 이르는 동빈내항을 세계 4대 미항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포항운하 건설과 함께 포항 구항 해양공원 조성과 재

개발, 송도백사장 복구, 북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을 연결하는 타워브릿지 건설, 영일만 대교 건설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십년간 막혔던 동빈내항과 형산강의 물길이 만나는 2013년에 포항의 새로운 시작과 도약을 제대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Q**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에 대한 애정도 남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지난해 12월 고 청암 박태준 포스코명예회장 1주기를 맞아 서울국립현충원을 찾아 애석하고 그리운 마음을 담아 포항시민을 대표해 고인에게 헌화했습니다. 박 명예회장은 포항시민이나 저에게 특별한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철산업을 통해 오랜 가난을 타파하고 경제부흥을 통해 국가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일념으로 포스코를 설립한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철강왕이지요. 그 투철한 정신과 강력한 추진력은 '자원은 유한, 창의를 무한'을 기치로 포항을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으로 만들었고, 나아가 세계 최고의 철강도시로 성장시켰습니다.

평소 '사람은 미치광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를 수 없다'라는 박 명예회장의 열정



은 오늘의 포항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철강강국, 산업대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제철사업을 통해 국가사회에 이바지한다는 포스코의 창업 정신과 궤를 같이해 교육을 통해 국가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했던 해안도 탁월했습니다. 포스코와 더불어 포스텍은 세계적인 대학으로 자리매김했고, 세계적인 연구소들이 함께하는 기초과학의 본산이 됐습니다. 교육을 통한 보국이야말로 고인의 가치관과 국가관이 담겨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지역민들이 박 명예회장의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청암 스틸 라이프 뮤지엄조성을 비롯해 청암포럼 개최, 스틸아트 뮤지엄 컬렉션 등을 통해 청암을 닮은 제2, 제3의 인물이 많이 배출되도록 그의 업적과 정신을 알리는데 앞장설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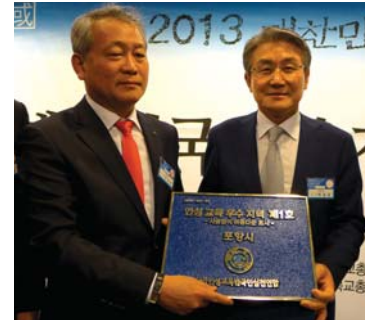
**Q** 국비 1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영일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A** 올해 포항시는 1조1천743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지원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천733억원에 비해 51.9%가 증가한 것으로, 영일만르네상스 목표 달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비 확보는 환동해 경제허브 기반 구축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인 동해남부선(포항~울산)과 중부선(포항~삼척),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KTX포항 직결선 등 SOC 구축을 통해 동해안권 산업 물동량 및 관광객 수송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환동해권 경제허브 도시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 제4세대방사광가속기 건설,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운영, 수중건설로봇 기술개발사업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첨단과학 인프라 구축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월에 새로 출범하는 새정부의 주요 공약사항과 연계한 사업 발굴, 기존 계속사업에 대한 철저한 국비확보 노력으로 영일만 르네상스 포항 실현에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우리 포항은 어떤 상황에서나 지혜와 용기로 시련을 이겨 왔습니다. 이와 함께 긍정의 자세가 사람의 능력을 배가 시키듯이 어려운 때일수록 긍정의 마음과 자세, 감사하고 나누는 마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올 한해는 포항이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하는 도전과 성취의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박승호 포항시장은 지난 1월11일 '2013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으로부터 '인성교육 우수도시 지정 동판'을 수여했다.



△ 박승호 포항시장은 지난 1월7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을 환동해 경제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항 선언'을 발표했다.

대담 | 백재호 편집위원장

정리 | 배준수 취재팀장



△ 동빈내항 복원 조감도

## 동빈내항, 세계 4대 미항으로 거듭난다

환동해 경제허브 포항의 필수조건, 해양문화관광레포츠 도시로 탈바꿈

포항시가 물류와 기술, 관광, 자본, 사람, 문화가 집중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동빈내항의 물길을 열어 환동해로 나아갈 것을 선언했다. 이른바 '환동해 경제허브 포항 선언'이다. 환동해권의 교류와 협력을 주도하고, 선도적 역할을 해내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복합수송체계 마련을 통한 물류중심도시, 경제거점도시, 해양문화관광활성화, 국제교류 강화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 확보 등 4가지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물류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영일만항 활성화와 역내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을, 경제거점도시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기 조성 및 기업유치, 첨단과학인프라 구

축과 기술교류 활성화, 첨단기술 산업화 전진기지 구축을 내세웠다.

특히, 해양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략과제로는 세계 4대 미항 만들기, 복합관광상품 개발, 국제적 수준의 도시 기반 구축을, 글로벌 브랜드 확보를 위해서는 환동해 네트워크 중심지 구축과 도심재생 및 도시인프라 강화를 과제로 삼고 있다.

이 가운데 해양문화관광활성화의 중심축이 되는 T9 오션 프로젝트는 환경오염에 의해 파괴됐던 포항의 동빈내항을 세계적인 미항으로 만들어 철강도시 포항이 아닌, 해양문화관광레포츠 도시로 탈바꿈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 포항운하



△ 포항 구항 해양공원

## 새역사의 시작

형산강이 해동동과 죽도동·송도동을 거쳐 영일만으로 빠져나가던 시기에 포항의 도심에 형성된 동빈내항. 급격한 도시화로 물길이 끊어지고 환경오염에 의해 악취만 가득한 곳으로 전락했다. 이에 포항시는 2006년 형산강 입구에서 송도교까지 1.3km 구간에 폭 15~26m, 수심 1.74m 규모로 운하를 건설기로 계획했고, 공사비 1천400억원을 투입해 현재 약 37%의 공정을 진행했다.

올해 동빈내항 복원사업(동빈운하 건설사업)이 완공되면 끊어졌던 물길이 다시 만나듯이 국내 최고 해양관광도시로서의 포항의 새역사가 비로소 시작된다. 포항시는 물길 주변에는 수상공원과 호텔·상가·선착장·문화체험공간·레포츠시설 등 대형 친수공간을 마련한다. 동빈내항 복원사업 완료 후 바닷물이 형산강으로 역류하는 현상을 예방하는 시설인 형산강 물관리센터도 만들어 인위적으로 강물을 끌어올려 유속 흐름을 높이는 것으로 동빈내항 복원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T9오션 프로젝트, 해양문화관광 활성화 전략

T9오션 프로젝트는 포항운하가 관광, 환경사업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내고 포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해양공원 조성사업 등 연계사업을 함께 펼쳐나가도록 했다. 동빈운하 건설사업(T1)을 중심으로 철강의 도시에서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가진 수변도시로 만들어 줄 주변도시 재정비 사업인 '캐널시티 조성'(T2), 친수공간과 시민휴식공간을 갖춘 '동빈내항 부두길 조성'(T3), 부력식 해양공원인 포항 구항 해양환경공원을 만드는 '포항오션파크'(T4)가 포함돼 있다.

또, 포항 구항을 재개발해 최첨단 비즈니스타운과 호텔, 공원 등 신개념의 워터프론트로 개발하는 사업인 '파인 아일랜드 파크'(T5), 2015년까지 송도해수욕장의 1.7km에 이르는 백사장을 복구해 침식해안 방지를 통한 해수욕장 기능회복을 도울 '송도 백사장 복구'(T6), 북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브릿지형 특수빌딩과 해양전망대와 문화시설이 있는 복합빌딩을 짓는 '타워브릿지 건설'(T7), 2020년까지 복구여남동 일대에 해양문화와 관광, 상업이 복합된 신도시를 건설하는 '해상 신도시 건설'(T8), 2020년을 목표로 남구 동해~북구 환여동의 영일만을 횡단하는 9km의 다리를 짓는 '영일만 대교'(T9)로 구성돼 있다.

포항시는 세계 4대 미항 만들기과 더불어 해양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일본 마이즈루항을 오가는 크루즈선 운항을 비롯해 소형 항공노선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마리나항 조성과 더불어 대구와 연계한 의료관광상품 개발과 포스코를 포함한 산업관광코스 개발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컨벤션센터와 특급호텔, 외국인학교 건립 등의 노력도 빼놓지 않고 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동빈내항의 옛 물길을 다시 이어 천혜의 아름다운 옛 동빈내항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라며 "기능이 상실된 무역항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고 도시 재생을 통한 수변도시로의 새로운 변화를 유도해 세계적인 미항으로 거듭날 것이며, 포항이 명실상부한 환동해권 최고의 해양문화관광레포츠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 | 배준수 취재팀장

사진 제공 | 포항시

# 100% 사과 원액만을 발효하여 빚어낸 고품격 사과와인 '상떼마루' 탄생!

소백산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영주사과와 최첨단 양조기술의  
결합으로 창조된 최고의  
사과와인 '상떼마루' 는  
깊은 향기와 품격 그리고 건강을  
여러분께 선사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해맞이 1번지 호미곶,

# 경북 동해안 최대 규모 죽도시장

### 해돋이 명소 호미곶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도시 포항답게 호미곶은 포항의 상징이다. 한반도 지형상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한 호미곶은 김정호 선생이 대동여지도를 만들면서 7번이나 답사·측정한 뒤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임을 확인한 곳이기도 하다. 또 조선 명종 때 풍수지리학자인 격암 남사고는 천하 제일의 명당이라고 했고, 육당 최남선은 백두산 호랑이가 앞발로 연해주를 활퀴는 형상으로 묘사하면서 일출제일의 조선10경의 하나로 꼽았다.

호미곶 해맞이 광장은 매년 한 해를 시작하는 해맞이 장소로 전국에서 명성이 높다. 이곳은 한민족 해맞이 축전이 매년 열리며, 상생의 손과 성화대, 불씨함, 연오랑세오녀상, 햇빛채화기 등이 마련돼 있다. 매년 12월31~1월1일 개최되는 이 축제에서는 대형 가마솥에서 끓여 낸 1만명분의 떡국을 맛볼 수 있고, 액운타파와 소원지작성 등의 흥미로운 이벤트도 접할 수 있어 인기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1월1일이 아니라도 매년

4~5월께는 광장 진입로에 조성된 유채꽃단지의 만발한 유채꽃을 즐기려는 인파들로 북적이기도 한다. 또한 1908년 완공한 호미곶 등대와 등대박물관은 호미곶을 찾는 이들에게 등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그대로 실감하며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 관광인파로 북적이는 죽도시장

1950년대 갈대밭이 무성한 포항 내항의 늪지대에 노점상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죽도시장은 1971년 11월 개설허가를 받았다. 과거에는 경북 동해안과 강원도 일대의 농수산물 집결지인 동시에 유통의 요충지였으며, 현재에도 그 명성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5대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에는 포항의 별미가 모두 모여있다. 포항물회를 비롯해 부위별로 12가지 맛을 낸다는 고래고기, 구룡포 과메기와 구룡포 대게, 오징어 피데기 등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200여개의 횃집이 밀집돼 있는 회센터 골목과 수협위판장, 건어물거리 등의 어시장 구역, 농산물거리와 떡자골목·떡집골목·이불골목·한복골목 등으로 이뤄져 있다.

과메기거리와 회센터 일원에서 열리는 ‘죽도시장 과메기·오징어 축제’와 ‘해산물 한마당 축제’ 등에는 2~3만여명의 관광객이 운집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한 죽도시장의 떡거리와 불거리, 즐길거리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다.

글 | 김원현 기자



# 대한민국 나눔온도를 높여주세요

'저 눈송이가 모두 사랑의열매였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랑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새벽부터 할머니와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려가는  
7세 소년의 꿈입니다

손 내밀어 주세요  
이들의 겨울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나눔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사랑의열매가 함께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지역사회 등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모금 및 배분전문기관입니다.

ARS기부 **060.700.0060** 기부상담 **053.980.7800** [gb.chest.or.kr](http://gb.chest.or.kr)





겨울철 최고 진미

# 구룡포 과메기



## 찬바람 맞고 쫄득함 더한 국민 별미

생선 한 마리가 청와대에 입성했다. 단짠으로 우뚝가사리로 만든 ‘영일만 막걸리’도 함께했다. 지난해 12월28일 청와대 송년행사 참가자들은 포항특산품 ‘과메기’의 쫄득쫄득하면서도 고소함이 묻어나는 독특한 맛에 반해버렸다.

겨울철 대한민국 대표 별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과메기의 고향은 포항 구룡포다. 유례없는 한파 덕분에 과메기 만드는데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췄고, 생산량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국 과메기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영일만이 만들어낸 과메기의 차진 맛이 제대로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가 익숙하게 즐겨 먹고 있는 과메기는 말리는 방식에 따라 ‘배지기(또는 짜배기)’와 ‘통마리(또는 통말이)’로 나뉜다. 껍질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반을 갈라 말린 것을 배지기라고 하며, 내장과 뼈를 제거하지 않고 껍질을 통째로 짚으로 묶어 말린 것은 통과메기라 부른다. 포항 본토 사람들과 과메기 마니아들은 통마리 스타일이고, 도시사람들은 배지기 스타일을 선호한다. 통마리는 비위가 약한 사람의 경우 축축하고 미끈거리고 다소 비릿한 냄새 탓에 질릴수도 있다. 그런데 통마리 마니아들은 또 이맛에 즐겨 먹는다고 한다. 하

여튼 배지기나 통마리나 김, 미역 등 해초류와 기가 막힌 궁합을 이룬다. 식성에 따라 마늘 상추 깻잎을 얹어 먹으면 씹을수록 입에 착착 달라붙는다. 향긋한 미나리와 풋풋한 고추, 맛깔스러운 쪽파까지 더하면 맛은 배가된다.

진짜 과메기는 따로 있다. 1960년 포항 사람들이 껍치 과메기를 먹기 이전에 즐겨 먹었던 ‘청어’ 과메기가 그것이다. 과메기 계에서 껍치가 껍통이라면, 청어가 원조다. 청어 과메기는 덩치가 있다 보니 껍치 과메기보다 물컹하고 비린 맛도 더 있다. 그러나 청어 과메기는 한번 맛 들이면 껍치 과메기는 싱겁다고 할 정도다. 최근에는 백화점에서도 부활한 원조 청어 과메기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포항 등지에서도 어렵지 않게 맛볼 수 있다.

글 | 김원현 기자

# 야구장 건립을 통한 문화인프라 확충, 대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 인간의 고유특성, 문화(文化)

문화는 영어의 'culture' 나 독일어의 'Kultur' 등을 번역한 낱말이다. 이들은 라틴어 'cultura'에서 유래하여 17세기 이래로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는 원래 '농사' 또는 '육체와 정신의 돌봄'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졌다.

그에 따라 이 낱말은 처음부터 농경과 정신적 재산의 돌봄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쓰였다. 문화의 개념은 후자의 뜻에서 점차 한 민족이나 사회의 정신적·예술적 표현의 총체라는 의미로 형성되어 갔다. 오늘날 문화라 하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교양 있고 세련되었으며 예술적인 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인 개념이다.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을 두고 '문화인'이라 부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한 문화를 뜻하는데, 인간에 의하여 이룩된 모든 것이 그 범주에 포함된다.

## 새로운 문화, 스포츠(sports)

스포츠의 의미는 시대와 국가의 정치, 경제, 교육에 의해 영향을 받고, 변화하면서 습득된다. 즉, 스포츠는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는 매개이면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구조에 의해 그 형태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문화 산물이다.

따라서 스포츠문화란 스포츠 활동에 따른 인간행동의 양식으로서 스포츠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활동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사회구성원에게 스포츠의 지식, 규범, 기술, 가치를 전달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스포츠는 우리 삶에서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스포츠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대다수 사람들은 여가로서의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 대구의 스포츠, 프로야구

프로야구는 제5공화국의 의지가 크게 작용해 국내에 도입된 스포츠이다. 제5공화국은 국민에게 건전한 오락과 화제를 제공해 흩어진 민심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프로야구를 추진해서 1982년 1월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출범시켰다.

대구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팀은 삼성라이온즈이다. 삼성은 1981년 프로야구 창립총회가 끝나자 대구·경북지역을 연고지로 한 삼성라이온즈의 창단을 서둘러 1981년 12월14일 서울 사무소(삼성 본관 6층)에서 가장 먼저 팀을 발족시켜 1982년 2월 삼성라이온즈의 모습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 대구시민들의 숙원이었던 새 야구장은 국내 최초로 팔각 다이아몬드형으로 만들어진다.

처음으로 세상에 선포했다.

대구시의 프로야구는 시민들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지금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많은 시민은 삼성의 홈경기가 있는 날이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야구장을 찾아서 열띤 응원을 펼치며 프로야구를 즐기고 있다. 바야흐로 프로야구가 여가로서의 스포츠문화로 자리 잡는 것이다.

### 가장 낙후된 대구시민야구장, 그리고 신축!

삼성라이온즈의 홈구장인 대구시민야구장은 1948년에 개장하여 대한민국에서 오래된 야구장 중 하나이며, 1981년 한국 프로 야구 출범을 위해 대대적인 개수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 중반부터 대구시민야구장의 노후화가 문제시되어, 야구장 신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부지확보, 행정절차, 재원마련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겹겹신중이어서 야구장 신축은 매년 제자리걸음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야구장 신축을 위해 대구시가 팔을 걷어 올렸다. 그해 2월 야구장 건립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일사천리로 진행, 마침내 지난해 12월 27일 수성구 연호동 대공원역 인근의 야구장 부지에서 기공식을 열었다.

### 문화 인프라 확충과 삶의 질 향상

이번에 건립되는 야구장은 Professional Park(한국야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야구장), Different Park(명품관중과 최강구단을 위한 차별화된 야구장), Eco Park(자연과 시민이 공존하는 야구장)의 콘셉트로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7개 프로야구장 모두 원형을 띠고 있는데 이번에 건립되는 대구의 야구장은 팔각 다이아몬드형으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장의 모양을 벤치마킹했다.

이번에 신축되는 야구장은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한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도시이미지 제고를 통해 관광산업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구시의 문화산업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대구의 이미지가 '문화도시'의 이미지로 재탄생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시내면세점 지역경제활성화 기폭제 될까?

개점 전 사업 포기, 대기업 독과점 악재  
국산품 40% 의무화 명품 브랜드 확보 불투명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들이 오는 4월부터 일제히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나오는 등 불안감이 드리우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31일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대구 그랜드관광호텔과 경북 서희건설 등 9개 지역 업체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사전 승인을 했다. 사전 승인을 받은 업체는 그랜드관광호텔(대구), 서희건설(경북), 인천송도면세점(인천), 신우산업(대전), 진산선무(울산), 호텔양곡르(경기), 중원산업(충북), 로케트전기(전남), 대동백화점(경남)이며, 이들 업체는 사전 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점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경주 보문단지 내 시내면세점 특허를 받은 서희건설이 지난 1월11일 돌연 사업 운영 포기를 선언했다. 유통경험 부족과 촉박한 오픈 일정을 이유로 내세운 서희건설이 개점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전체 면세점 매출의 80%를 차지





하고 있고, 면세점 성공의 관건인 해외 유명브랜드를 갖춰야 하는 등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중견·중소기업으로 이뤄진 시내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면세점사업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지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또, 승인을 받은 업체 대부분이 유통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점도 사업 성공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더하고 있다.

### 벌써 포기, 대구는 어쩌나

대구지역 첫 시내면세점은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관광호텔 별관 3층 건물에 들어선다. 그랜드호텔 측은 별관 3층 건물을 중·개축해 1천224㎡ 규모의 면세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40% 가량인 497㎡는 지역 특산품 등 국내제품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100억원 가량을 투입해 현재 150개 객실 규모를 200개 규모로 키워 중국과 일본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그랜드호텔 측은 “면세점을 통한 수익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물 등 국산품 판매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주시 신평동 현대호텔 내에 658㎡ 크기의 점포를 개점할 예정이었던 서희건설이 부족한 유통 경험, 촉박한 오픈 일정,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관세청이 경북지역 새 면세사업자를 선정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서희건설의 사업 포기 선언 이유는 이번에 선정된 9개 사업자의 공통된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에 들어서는 시내면세점의 사업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다 전체 매장 가운데 국산품 매장 의무 설치 비율이 40.7%에 달하는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유명 브랜드 보다는 기념품을 취급하는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운 현실도 부정적인 전망에 한몫하고 있다.

### 대기업 독식 구조 이겨낼 수 있나?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는 주체는 중소·중견기업이다. 롯데와 신라가 면세점 매출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 경험이 없는 이 기업들이 해외관광객을 위한 인프라가 전혀 없다시피 한 지방에서 사업성공을 거두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한구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자료를 통해 밝힌 면세점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롯데 50.7%, 신라 28.4%로 전체의 79.1%를 차지했고, 지난해 7월 기준 롯데 50.6%, 신라 30.3%로 두 기업이 80.9%를 독식했다. 또한, 2011년 기준으로 롯데·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면세점 전체 매출 비율의 9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세점이 특정기업의 전유물로 전락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도 대기업인 롯데와 신라의 면세점은 국내 모든 여행사들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으며, 버스를 이용한 면세점 쇼핑관광을 이뤄내고 있다. 여행사와의 계약을 통한 면세점 쇼핑코스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이 대기업 면세점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 내국인 전용으로 전략 우려

대구시는 이번 시내면세점 설치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산품의 판매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서울 6곳, 부산 2곳, 제주 2곳 등 10곳의 시내면세점의 이용객 절반가량이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애초 기대와는 달리 내국인 전용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내 면세점 28곳(공항 등 출국장 17곳, 시내 10곳, 외교관 전용 1곳)의 매출액 5조3천716억원 중 내국인 구매액이 전체의 49.6%에 달하는 2조6천66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6월에는 3조257억원의 면세점 매출액 가운데 내국인이 1조3천357억원어치를 구매했다. 2011년 면세점을 이용한 내국인은 1천643만명, 외국인은 987만명이었고, 지난해 1~7월에는 내국인 958만명, 외국인 696만명이 면세점을 찾았다.

### 해법은 있나?

이 같은 악재에도 시내면세점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역할을 분명히 해낼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먼저 관광 인프라 구축 효과를 내세운다. 시내면세점이 개장하면 여행과 숙박, 관광지, 카지노, 의료, 컨벤션 등의 동반성장이 가능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





대다. 면세점 오픈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지역 특산품과 브랜드의 국제적 홍보와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실제로 지역 유통업계에서는 면세점의 유무는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적 요건으로도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내면세점 설치 덕분에 대구를 방문하는 외국인과 출국하는 내국인이 대구 이외의 타지에서 쇼핑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이 역외유출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대효과 중 하나다.

서비스의 질도 운영 성공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만큼 브랜드 관련 상품에 대한 인테리어 매장이나 기업대표의 의식, 판매 매출예상에 따른 직원서비스 및 할인 등 다양한 유치전략이 필요하다. 공항에서 출국 전 직접 구매하는 성향을 가진 내국인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의 마케팅 전략 수립이 중요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명품 브랜드 유치와 더불어 외국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지역만의 특색이 담긴 차별화된 명품을 내놓는 일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

글 | 배준수 취재팀장

사진 | 김원현 기자



# 민주당 혁신의 길

## 복마전(伏魔殿)

민주통합당은 18대 대통령 선거가 박근혜의 승리로 끝난 후 선거패배의 후유증을 심각히 앓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원장으로 문희상을 내세웠지만, 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문 위원장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은 누가 당권을 잡더라도 당의 체질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는 당의 내부사정에 비교적 밝은 사람조차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계파가 많고, 계파들 간의 이해관계가 이중삼중으로 얽혀 있어 과연 문 위원장이 난마(亂麻)처럼 얽힌 민주당의 이해관계를 쾌도(快刀)하면서 당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집권은 민주당이 과거 갖지 못했던 국정운영의 경험을 선물했지만, 부작용으로 당내의 이해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현재 민주당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호남지역을 근거로 박정희 군부독재와의 투쟁 속에서 형성된 세력과 신군부와의 투쟁을 통해 형성된 386세력, 친노(親盧)와 비노(非盧), 한나라당에서 넘어온 세력과 시민사회세력이 얽혀있고, 거기다 집권 10년 동안 형성된 이해관계는 민주당내 세력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원 100명이 모이면 계파가 50개 나온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사람 둘만 모이면 계파 하나를 만들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당내 세력구조는 같은 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동지의식을 느낄 수 없게 만들었고, 이번 대선은 이러한 민주당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선거였다.

더구나 대선패배 이후 ‘내 탓이오’를 외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바통만 바꾼다고 해서 상처 입은 지지자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 경적필패(輕敵必敗)

2011년 가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로 촉발된 일련의 정국 흐름은 민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에 충분했다. 4·11총선에서 한나라당은 당의 존폐를 거론할 정도였고 당명을 새누리로 바꿀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러나 4·11총선 당시 민주당 한명숙 대표의 지도력은 한계를 보였다. 계파안배와 정실에 의한 공천은 총선패배로 귀결되며 새누리당에게 과반의석을 내줬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조차 4·11 총선은 야당의 선거 실패가 여당의 승리 요인이 된 선거라는 결론을 냈지만,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스스로를 성찰하지 못했다.

8개월 후 민주당은 또 다시 도저히 패배할 것처럼 보이지 않던 선거에서 졌다. 대선 여론조사는 문재인과 안철수 중 누가 단일후보로 나서더라도 박근혜를 이길 수 있다는 반복적인 결과를 보여줬고, 이명



박 정부 5년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컸기에 민주당에 대한 반사적 지지율 역시 높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4월 총선의 과오를 반복하며 대선마저 패배했다.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대선패배의 1차적 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문재인이 낙선 기자회견에서 밝힌바와 같이 진영논리에 갇혀 중도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것 역시 중요한 패배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문재인이 낙선 기자회견에서 진영논리에 갇혀 있었다고 고백한 것은 대선 실패 원인을 정확히 진단했다는 점에서는 훌륭한 모습이지만, 만약 그가 투표 전에 민주당과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진영논리를 깨야한다고 호소했다면 선거의 결과는 달라졌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재인은 그런 호소를 하지 않았고, 바로 그 점이 정치인 문재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문재인은 자신의 구상대로 선거를 끌고 갔다가보다는 주변에 끌려 다니는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친노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진영논리를 탈피하지 못한 근본에는 자당의 후보가 야권단일후보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어떤 식이든 단일후보가 되기만 하면 박근혜를 이길 수 있다는 경적필패의 오만함이 깔려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지지자들을 포용하고 새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수용하려는 전향적인 자세보다는 단일후보를 쟁취하는 것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또 문재인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결정된 순간 문재인계를 제외한 민주당내 다른 모든 계파는 사실상 '열중쉬어' 자세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대선은 민주당이 치른 것이 아니라 문재인 캠프가 치렀다. 민주당에게는 당내 권력투쟁이 정치의 모든 것이 된 것이다.

당내 분위기가 이러니 정작 새누리당과 치러야 되는 본선에는 관심과 열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제대로 된 정세분석과 전략을 기대하기 힘들었고

선거전의 실천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총력을 벌인 새누리당의 집요하고 치밀한 모습과 비교하면 민주당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는 어설픈 아마추어의 모습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 사즉생(死即生)

2012대선은 한국사회의 갈등구조가 극명하게 드러난 선거이기도 했다. 전통적인 지역갈등 구조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진보와 보수의 이념대결 역시 더욱 첨예하게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그동안의 선거에서는 표면화 되지 않았던 계층 간의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도 크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갈등의 백화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갈등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사회발전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갈등의 해결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결론의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갈등이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주류와 비주류, 보수와 진보, 여와 야의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적절히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한국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혁신은 매우 중요한 의제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당으로는 한쪽 날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 입증되었고, 이제 민주당은 '발전적 해체'라는 사즉생(死即生)의 기로에 서있다. 민주당이 작은 기득권에 집착해 이마저 외면한다면 한국사회는 오랜 시간 균형이 상실된 비정상적인 정치에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평당원에게 공천권과 당직임명권을 돌려주는 상향식 의사구조의 정당으로 거듭날 때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글 | 백재호 편집장



△ 남부권 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는 1월23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토론회를 갖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남부권 신공항 조기 건설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남부권 신공항 다시 날개 편다

신공항 조기 추진 전방위 압박,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선정 촉구  
지역갈등 피하고 여론 우위 선점할 새 후보지 모색도 이뤄져

지역민들의 숙원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전면 백지화 했던 남부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신공항 건설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새누리당의 대통령선거 중앙당 공약집에도 100% 국민행복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8대 핵심정책으로 선정됨에 따라 남부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다 박 당선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대구·경북·경남지역민들은 남부권 신공항 조기 건설을 염원하며 밀양권 유치 열기를 지피고 있고, 가덕도를 고집해 온 부산도 본격 유치 경쟁에 재돌입했다.

특히, 밀양 유치 운동을 벌여왔던 남부권 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위원장 강주열·이하 추진위)와 대구상공회의소, 경북상공회의소 등은 1월28일 대규모 토론회를 열어 △남부권신공항 입지는 영남권에 두되 남부권초광역경제권의 핵심 인프라로 건설할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제적으로 공



인된 국내외 항공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 선정'의 약속 이행 △집권 초기에 신공항 건설에 대한 조기 입지 결정 △부산시가 요구한 '김해공항 가덕 이전 우선 용역 실시'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과 영남권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입지 선정 △'남부권신공항 조기 건설' 국가 주요과제 채택 등 5개 항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채택, 김용준 인수위원장에 전달해 신공항 조기 건설을 촉구하면서 유치 열기는 어느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다.

앞서 대구시의회 남부권신공항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지숙)도 울산, 경북, 경남 등 광역의회와 함께 작성한 신공항 조기 건설 촉구 청원서를 인수위에 제출하는 등 남부권 신공항 건설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 남부권 신공항, 왜 필요한가?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부산·경남, 호남, 충청지역민들이 이토록 재추진을 염원하고 있는 것은 '하늘길이 살길'이라는 데서 시작한다. 인구의 절반과 100대 기업 본사의 90%, 금융예금의 70%가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돼 있고, 국가 관문공항이 수도권에 단 1곳뿐인 현실을 바꿔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잘 사는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사업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추진위는 2천만 인구의 남부권에 국제관문공항 부재에 따라 1조원으로 추정되는 사회·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외국기업이나 관광객이 남부권에 대한 투자와 여행을 꺼려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제공항 건설 소요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천공항이 2020년, 김해공항이 2020~2025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항공수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하루빨리 남부권 신공항이 건설돼 국가경쟁력 강화와 남부권 전체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효준 한국항공정책연구소 고문은 "김해공항의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부권에 새로운 공항, 대한민국 제2의 관문공항을 조기에 건설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남부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입지 논란 넘어설 새 후보지 모색

지난 정부 때 부산시와 갈등을 겪었던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차기 정부의 입지 선정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고, 밀양을 고집하지 않으며,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지도 않는다"는 선언까지 했다. 이에 반해 부산시는 2011년 11월 한국항공대학에 발주해 김해공항의 부산지역 내 이전을 대전제로 가덕도가 이전지가 돼야 하는 이유, 밀양 등 내륙공항이 안 되는 이유 등에 대한 국외 전문가, 항공기 조종사들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토대로 가덕도 건설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에는 국토해양부에 가덕도 해안 입지의 타당성 여부 용역을 우선 실시해달라는 요구를 해 밀양 유치를 추진해 온 대구·경북 등 지역의 반발을 불러모으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추진위는 1월23일 토론회에서 부산의 논리에 맞서고 갈등을 최소화 할 대안으로 밀양시 하남읍에서 낙동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창원시 대신면으로 입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도출해냈다.

추진위의 새 카드는 활주로는 창원 대사면에 두고 밀양과는 공역을 함께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기존 부산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안전성과 접근성, 건설비와 환경훼손 문제를 보완하면서 지역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김재석 경일대학교 건설공학부 교수는 “창원 대신과 밀양 하남을 묶는 새 입지는 접근성에서부터 항공 수요, 소음, 공역, 지형장애물, 토지이용, 환경피해 및 자연재해, 건설비 및 공사기간, 경제성(B/C)등의 조건을 분석한 결과 가덕도보다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권 신공항의 최적입지는 창원(대산)·밀양(하남)이며, 2천만 남부권 주민의 공동발전과 인류번영을 위한 거대한 희망이다”라고 주장했다.

## 반대논리 극복해야

지역민들은 남부권 신공항이 백지화 된 데에는 신공항 무용론을 펼쳐 지역민과 지방의 발전을 도외시한 수도권 언론과 정치인 등 반대론자들에 깊은 반감을 품고 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남부권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덧붙여 심각한 지역 간 갈등이라는 악재를 벗어버리고 합의를 하는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수산 추진위 사무총장은 “신공항 백지화 선언은 지방 죽이기에 혈안이 된 수도권 중심론자들과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정치꾼들의 야합에 의해 지방민의 꿈이 무참히 밟힌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기존 지방공항이 적자투성이인데 또 하나의 지방공항을 만든다는 잘못된 논리를 넘어서서 신공항이 특정지역 앞마당에 건설해 그 지역만 잘 살게 하지는 것이 아니라, 남부권 전 지역의 발전과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최적의 수단이라는 점을 널리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주열 위원장도 “지역 간 갈등으로 비친 것이 결국 정치권과 수도권 중심론자에 빌미를 줘 백지화됐던 게 사실이다”며 “대화와 타협, 양보와 절제를 통한 지역갈등 해결방안을 찾고, 남부권 신공항이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후손들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주춧돌이 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겠다. 그리고 입지 선정을 전문가의 손에 맡겨서 다시는 정치적 논리로 백지화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면 관련 지자체와 지역민 모두가 승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글 | 배준수 취재팀장



△ 대구시의회 남부권신공항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9일 신공항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달했다.



## 강주열

### 남부권 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장



**Q** 남부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은.

A.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남부권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 특히 2천만 남부권 지역민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국책사업이다. 결국,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길이다.

**Q** 신공항 조기 건설의 최대 관건은.

A. 세계 각지로 통하는 관문이 단 하나뿐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사람과 물류의 선점을 위해 충성 없는 전쟁을 치르는 국가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2관문공항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이해시키고 확산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수도권의 인식 전환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신공항 조기 건설의 최대 관건이다.

**Q** 신공항 무용론이 다시 제기된다면.

A. 신공항 건설을 놓고 벌인 지역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 적자투성이 지방공항 건설이라는 논리 탓에 신공항이 또다시 백지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10조원 가량이 투입될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양양이나 무안공항 같은 지방공항 만드는 사업과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안다. 또한, 인천공항이 2017년 3단계 확장공사를 하더라도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감당해 내지 못해 결국은 이를 보완해줄 제2관문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명백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 미래 국익에 대한 냉철한 판단에 따라 이미 공약한 신공항 건설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가 주요정책으로 선정한 후 차기 정부에서 최적의 입지를 조속히 선정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Q** 새 입지에 대한 생각은.

A. 민간차원에서 인수위에 제시할 새로운 후보지는 낙동강을 마주하고 있는 창원시 대산면 유등리와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다. 대산면 일대는 넓은 평야지대여서 신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훼손이 적을뿐더러 공항 관련 산업, 레저시설, 산업단지 조성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명박 정부 당시 가덕도와 밀양에 대한 조사에서 10개 항목 가운데 7개 항목이 밀양이 앞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밀양 입지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새로운 입지, 최적의 입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면 된다.



## 버리는 것은 물 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인의 평균 하루 물 소비량은 약 350L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40% 많은 1인당 평균 약 400L의  
물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수돗물을 10%만 아껴써도 연간 3천1백억원이 절약  
된다고 합니다. 무의미하게 틀어 놓은 수도꼭지  
이젠, 잠궜야 할 때입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 가사소송의 전속관할

KTX의 개통으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역안에 들어오는 등 정보 통신의 발달로 시·도의 경계를 달리하는 이사로 흔하지 않은 풍경이다. 원거리 이사가 늘면서 미처 신분관계를 정리(이혼)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부의 주소지가 달라질 경우 이혼 소장을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부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주민등록을 하고 같이 살면서,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려온 A씨는 결국 남편과 합의하에 별거를 했다.(경제 형편상 자녀들은 시댁에 맡겨졌다). 이후 형편이 나아진 A씨는 신분관계를 정리하고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했으나, 남편이 주민등록이 말소돼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여서 이혼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몇년이 지나서야 남편이 수원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됐으나, 수원까지 가서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니 막막하기만 하다.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은 일반 민사사건과 구별해 혼인관계소송의 토지관할에 관해 특칙(가사소송법 제22조)을 두고 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쉽게 말하면 “주소”)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동조 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동조 제2호) △위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동조 제3호)을 혼인 및 이혼 관련 가사사건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A씨의 사례에서는 A씨의 남편이 수원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A씨 부부의 최종 공통의 주소지가 대구였고, A씨가 현재 대구에 살고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거해 대구가정법원에 여전히 관할권이 있다. 그러나 A씨 역시 부산으로 전거를 한 상태라면, A씨 부부는 현재 각자 수원과 부산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22조 제1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최종 동거지인 대구가정법원 내에 부부 중 아무도 보통재판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제2호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동조 제3호에 따라 A씨는 수원지방법원 가정지원(수원에는 가정법원이 없고, 수원지방법원 내에 지원 형식으로 있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반대로 A씨의 남편이 A씨를 상

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부산가정법원이 전속관할 법원이다.

참고로 A씨는 남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한동안 소송을 망설였지만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는 사정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정하는 제1의 표준은 주소이고,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제2의 표준은 거소이다. 이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제3의 표준은 최후의 주소(민사소송법 제2조)이다. 즉, A씨의 남편이 소재불명이라면 최후주소지(말소직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판단하면 된다. 따라서 A씨의 남편이 대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적이 없다면 A씨는 대구가정법원에, 만약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적이 있다면, 그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다.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의 전속관할을 인정한 취지는 부부가 별거하기 직전까지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던 주소지 주변에는 혼인관계 소송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증거방법(주로 인증(人證)인 친족, 직장동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관내에 남편 또는 아내가 살고 있으므로 당사자에게도 편리하다. 법원 역시 심리의 신속,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적인 이유 때문일 것이다.



조 은 희 변호사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 방향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의 하나로 지역 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도입을 결정한 지 8년이 지났다. 2004년 12월 제1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6개의 지역특구가 지정된 이래,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11년 12월 기준 119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50개의 지역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사업시행 초기에는 특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언론 등 각종 매체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일부 있었지만, 외부 잡음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내실을 기하여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 대구약령시한방특구는 지난 2004년 12월30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가장 먼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약령사에서 매년 펼쳐지는 한방문화축제의 모습. 대구 중구청 제공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 제도가 다른 제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129개에 달하는 규제 특례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들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세수 증가, 일자리 창출, 민간기업 유치, 지역 브랜드가치 향상 등으로 연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구 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순창 장류사업특구, 성주 참외산업특구, 함평 나비산업특구, 고성 조선산업특구, 부안 누에타운특구 등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몇몇 특구는 부실특구로 분류되어 별도 관리되거나 해체되는 일도 있다. 특구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특구지정 후에 자치단체장과 담당 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공한 특구와 부실한 특구로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구 제도가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지만, 내실을 기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처음부터 활용하기 곤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구가 있는가 하면, 민간자본 유치 실패로 말미암은 재정적 압박으로 자체운영이 불가능한 자치단체도 있다. 또한, 인접특구와의 협력, 공동 마케팅 등 지역 간 상생하는 모습이 부족하였으며, 민간기업·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도 많지 않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특구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혁신과 미래지향적인 규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입법화하는 것이다. 지역특구의 가장 큰 매력은 재정이나 세제지원 없이 규제 특례만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규제 특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발전에 효과가 크고 민간자본 유치 등 재원조달에 도움을 주는 핵심적인 규제 특례를 발굴하여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사업자 유치에 자치단체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구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면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 유치가 필수적이다. 자치단체는 민간자본 유치에 있어서 해당 특화사업의 성격에 맞는 전략적 홍보 전략을 수립·집행하는 한편,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여러 방면에서 강구해야 한다. 투자유치 설명회, 기업인 및 지역 상공회의소 네트워크, 적극적인 특구홍보, 민간과 컨소시엄형성, 기반시설 제공,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지역특구의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이다. 지역특구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지역특구의 성과는 지역의 소득향상과 고용창출에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논의 통해 시장 수요의 변화, 각종 제품의 개발과 판매, 홍보방안, 특산품의 판로 개척 등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적극적인 추진의지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 특구들은 자체재원조달이 어려워 별도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은 지원비율이 책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아내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지와 추진역량에 달렸다. 이러한 것들은 자치단체장이 기업 CEO와 같은 경영능력과 강력한 추진 의지, 지역주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할 것이다.

전국 230여개 자치단체 중 아직 절반이 넘는 120개의 자치단체가 지역특구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지역특구제도가 타 제도와 비교해 볼 때 직접적인 예산지원과 세제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 특례를 적절히 활용하여 지역 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다. 규제 특례는 다른 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글 | 이광희 편집위원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 성주

해동 제일의 명산 성주 가야산  
세계 명물 성주 참외  
기업하기좋은 성주

생활사의 고향 성주로 오세요

生

活

死







과 6천여 자원봉사자의 힘으로 화합의 대제전으로 마무리했고, 불산 누출사고 피해주민들의 어려움마저 헤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포츠 도시 구미에서 스포츠를 통한 진정한 화합을 이뤄낸 덕분이다.

이 과장의 이 같은 성과 이면에는 끊임없는 자기계발 노력이 숨어 있었다. 국립구미전자공고 졸업 후 공직에 입문하고 나서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를 거쳐 그 바쁜 틈에도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공직생활 내내 책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여기에도 잦은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에도 몸을 아끼지 않는 등 고향 구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실천하고 있다.

## 명품체육도시 구미, 이 손안에 있습니다!

구미시는 지난해 큰 홍역을 치렀다.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인한 상처가 컸다. 여기에도 유럽발 경제위기 등의 악재가 겹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구미시는 온갖 노력으로 사고 조기수습을 한데 이어 도시의 상징인 삼죽오(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길조)와 같이 힘찬 비상을 거듭하고 있다. 제50회 경북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명실상부한 명품스포츠 도시로 우뚝 섰고, '젯빛 산업도시'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졌다. 그 중심에는 이성철(53) 구미시 체육진흥과장이 있었다.

구미 광평동(다송)에서 나고 자란 '구미토박이'인 이성철 과장은 구미의 체육역사에 제2의 도약이라는 선율을 이끌어내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도 같다. 1980년 대구 북구청에서 행정 9급으로 공직에 발을 디딘 이후 줄곧 구미발전과 더불어 스포츠 도시 구미를 위한 부서에서 역량을 쏟아냈다. 특히 불산 누출사고 여파로 취소까지 검토됐던 도민체전을 42만 구미시민

## 이 성 철 구미시청 체육진흥과장

계사년 새해 계획도 옹골차다.

“현재 형곡동에 건립 중인 전국 유일의 장애인체육관이 오는 4월 말에 완공되면, 경북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전국핸드볼대회와 대통령기전국테니스대회를 비롯해 12개의 국제 및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해 스포츠마케팅의 전성시대를 맞게 됩니다. 특히 제99회 또는 제101회 전국체육대회의 경상북도와 구미시 유치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도체육회와 더불어 범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글 | 손지강 편집위원

# 지역 중소상인들, 유통법 개정안에 실망만 가득

## 의무휴업일 줄고, 영업시간 제한 완화돼 지역상인들 불만 골목상권 무차별 침투하는 대기업 드럭스토어도 위협



△ 의무휴업일을 알리는 안내판 뒤로 쇼핑객들로 북적이는 대형마트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방안을 담아 골목상권보호 법이라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이 지난 1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역 중소상인들은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애초 합의안보다 대형마트 측에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국무회의와 지자체 조례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6월께 효력이 발휘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달리 법의 규제를 피해 생필품부터 건강기능식품, 헬스·

미용 제품을 판매하는 드럭스토어가 골목상권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법 당사자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최악의 상황을 피해 ‘불행 중 다행’이라며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애초 야당이 주장했던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갖춰진 덕분이다.

그러나 골목상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목놓아 기다려 온 중소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에서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확정했다. 이는 당초 지난해 12월 여야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마련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보다 2시간 단축된 것이다.

많은 대형마트 등이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또 ‘월 3일 이내’로 돼 있던 의무휴업일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로 바뀌었다.

전국의 지자체와 지방의회들이 조례를 재개정해 대부분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하는 상황에서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이는 중소기업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이 제안했던 ‘4일 의무휴업’과 ‘밤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게다가 휴일 의무휴업도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는 별도의 단서조항을 뒤 추후 협의 과정에서 매장별 상황을 반영할 수 있게 된 점도 중소기업들의 반발에 한몫하고 있다.

그나마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던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형마트도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게 됐다. 대형마트 등을 출점할 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등록요건이 강화됐고, 영업시작 30일 전에는 출점지역과 시기 등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 입점 예고제를 도입했다.

이번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대구시상인연합회 김영오 회장은 “죽어가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해줄 것으로 믿었는데, 실망감만 가득하다”며 “법안 통과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는 자괴감만 가득하다”고 전했다.

대구중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임재영 이사장도 “유통법 개정이 결국은 대기업의 논리에 끌려가버려 답답하기만 하다”면서 “대형마트, SSM, 편의점과 더불어 최근에는 유통업체의 분류에 들어가지 않아 생필품이나 식음료 구성을 늘리며 편의점과 슈퍼의 모습과 비슷해지고 있는 대기업의 드럭스토어의 문어발식 골목상권 장악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역 소상공인들은 삼중, 사중고를 겪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형마트와 대조적으로 한산한 재래시장

글 | 배준수 취재팀장 · 사진 | 김원현 기자



## ▶ 참가 인센티브

- 단체참가(30인 이상)
  - ▶ 단체 부스 제공
  - ▶ 훈제돼지고기 1족 제공 등
- 5회 연속 또는 7회 이상 참가자 지역 특산품 제공 (5km제외)
- 10km 이상 10회 연속 참가자 등록비 면제(참가비 반환)
- 풀완주자 : 특별 기념품 제공
- 현장 경품 추첨 : 세탁기, TV 등 다수
- 각종 먹거리 제공 : 딸기, 토종 돼지, 막걸리, 두부 등

## ▶ 합천 오시는 길

- 1 남해고속도로**  
군북IC - 의령(대의) - 합천읍(40분)
- 2 88고속도로**  
고령IC - 합천읍(20분)  
해인사IC - 묘산면 - 합천읍(35분)
- 3 중부고속도로**  
김천JC - 고령IC - 합천읍(50분)
- 4 구마고속도로**  
창녕IC - 청덕면 - 합천읍(40분)
- 5 대전고속도로**  
단성IC - 생비량면 - 합천읍(40분)

### 네비게이션 검색안내

주소검색 경남 합천군 합천읍 장수로 1  
 위치검색 합천공설운동장  
 전화검색 055)931-9625



격을 달리한

달리미의

한마당 축제가 펼쳐집니다.

제12회

합천 벚꽃 마라톤 대회

- 일시 : 2013. 4. 7(일) 08:30
- 장소 : 합천 100리 벚꽃마라톤코스  
(집결장소 : 합천공설운동장)
- 종목 : 풀, 하프, 10km, 5km  
(대한육상경기연맹 공인코스)
- 주최 : 합천군
- 주관 : 합천군체육회



www.hcmrt.or.kr

#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을 통한 지역 문화재의 재탄생

문화재라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이라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로 일반의 국민이 인식하는 문화재는 오래된 성벽이나, 건축물, 무형의 오래된 것 등의 좁은 범위에서 의미를 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호와 활용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문화재 보호와 한계

사회가 성숙되고 발전함에 따라 문화재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아리랑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과 같이 우리의 문화재는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나, 과거에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로 조상들의 생활환경과 그 모습을 담은 많은 문화재가 훼손되고 소실됐다. 이에 과거 정부는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 일부 문화재에 국보, 보물, 유무형 문화재 지정을 통한 보존·정비를 실행했다. 하지만, 대부분 문화재의 원형 복원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이 컸다.

## 지역 문화재의 활용의 시작, 생생문화재사업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관리를 원형보전과 보호에서 활용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정책에 발맞추어 지역의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문화재청 주관으로 시작한 생생문화재사업은 각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활용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교육·관광 자원으로 적극 육성, 궁극적으로는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보존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8년 신안중도의 염전체험을 비롯한 4건의 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30건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우수발전형 25건, 시범사업 육성형 29건 등 45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비지원의 경우 주요사업은 1억원 내외, 기타사업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의 규모는 타 예산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나, 추가적인 사업의 발굴과 관광효과를 기대해 본다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과거에는 100%를 지원하였으나 올해의 경우 70%로 국고보조율이 낮아진 것은 아쉽지만, 행정지원 및 사후관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지역(경북)과 생생문화재사업

우리지역의 생생문화재사업은 다른지역 보다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2008년에는 전무했고, 2009년 경산시 1건, 2010년 계속사업 1건과 경주, 안동시 2건, 2011년 4건, 2012년 대구 1건, 경산 1

〈지역 및 연도별 생생문화재사업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경기·강원권	0	2	5	8	11	15
부산·경남권	0	2	2	2	4	7
대구·경북권	0	1	3	4	2	3
광주·전라권	3	2	5	7	5	9
대전·충청권	1	1	4	6	7	9
제주권	0	0	1	2	1	2
합계	4	8	20	29	30	45

건으로 집계됐고, 2013년에는 경북 3건으로 사업의 이용면에서는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다양한 전설과 유교 문화유적을 비롯, 근대유적이 산재한 대구·경북이 사업의 이용률이 낮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 할 것이다.

### 우리지역 생생문화재사업의 발굴

지역에는 석기시대의 문화재에서부터 근대 건물,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곳, 사물놀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전적지 등 다양한 부분의 문화재가 광범위 존재한다. 각 문화재마다 관련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지만, 이러한 문화재에 대한 자치단체의 활용 부분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지역의 사업들 대부분이 단일 스토리를 가졌으며, 이 때문에 그 활용성 면에서도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칠곡과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문화재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거창한 복원이라던지 단순 문화재의 공개에서 벗어나, 지역 내 문화재의 연계를 통한 활용방안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의 시대와 우리지역의 문화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다. 단순히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곱게 건네 주는 것도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으로는 상당히 훌륭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보존한 문화재는 차후에는 그냥 오래된 물건일 수 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재에 대해 알아가며, 삶이 물어날 때 바로 문화재로서의 효용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앞서 문화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생문화재사업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삶속에 묻어난 문화재,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진정한 방법이 아닐까.

글 | 김기환 편집위원



내 자식이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안동장터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안동장터**로 오세요.  
Andong Marketplace 

안동장터 인터넷 주소 : <http://andongjang.com>

문의전화 : 080-501-0501, 054-853-5088 팩스 : 054-841-5377

안동장터는 안동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특산물을 산지가로  
직거래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안동시에서 운영합니다.

# 지역 MICE산업의 새로운 리더, (주)아이엠샘넷



△ 아이엠샘넷은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에서 대구와 경북홍보관을 성공적으로 설치·운영해 지역의 도시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이엠샘넷 제공.

최근 들어 ‘미이스(MICE)’ 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비즈니스 관광(BT)이라고도 하며,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이 회의, 포상관광, 각종 전시·박람회 등 복합적인 산업의 의미로 해석되면서 생겨난 개념이다.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 기획업체, 개최 시설, 숙박업체, 음식점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며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큰 덕분에 미이스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굴뚝 없는 황금 산업’으로까지 불리고 있다. 대구·경북의 미이스산업 또한 매년 급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의 영역이 아닌 민간의 영역이라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역 미이스산업의 한 축을 이어가고 있는 (주)아이엠샘넷이 주목받고 있다.

## 광고기획을 넘어 컨벤션기획·설치·운영으로

아내와 함께 현재의 아이엠샘넷을 설립한 송형호(47) 기획이사는 원래 광고기획자였다. IMF의 여파를 거치면서 지인들과 광고회사를 설립했고, 그무렵 전시컨벤션 분야에 눈을 떴다.

현재 EXCO(대구전시컨벤션센터)인 대구종합무역센터 건립 추진위원회와 우연한 기회에 접하면서부터다. 지역의 전시컨벤션분야 민간기업이 대구시와 함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전(DENPO)을 최초로 맡으면서 이 분야에 입문했다. 지역 최초의 민간참여 전시회를 운영한 것이다.

이를 발판삼아 2000년 EXCO가 개관하면서부터는 전시기획, 전시주최, 전시대행, 전시장치 등의 영역에 걸쳐 준비를 해나갔다. 2002년에는 아이엠샘넷의 전신인 샘커뮤니케이션을 설립해 홍보관과 부스, 디자

인 등 전시장치 분야를 특화했고, 2004년에는 독보적인 쾌거도 이뤄냈다. 유수의 서울지역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대통령이 참가하는 전시회의 전시장치분야 실적을 따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경쟁력을 국가의 경쟁력으로 삼겠다는 국정철학을 담은 제1회 대한미국지역혁신박람회에서 대구·경북공동관 설치·운영을 하면서 이 분야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지역에서 인정받은 샘넷은 안면도 꽃박람회 경상북도홍보관, 슈퍼카페스티벌 등의 실적을 쌓으면서 지역 전시컨벤션산업의 새로운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지역에서도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에서 대구·경북홍보관 설치·운영을 비롯해 일본 환경전시회 세계물포럼 홍보관 설치·운영, 대구패션주얼리워크 기획·운영, 경북과학축전 기획·운영, 마이스터대전 설치·운영 등 굵직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성공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 MICE산업의 미래 이끌 리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전시시설이 중심이 된 지역의 마이스산업은 사실 민간업체에게는 문호가 극히 제한적으로 개방돼 있는 실정이다. 90% 이상을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시시설이 관련 행사 등을 수주해 기획·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엠샘넷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나름의 영역을 개척해나가고 있고, 외연을 보다 확장해나가고 있다.

더불어 부설 마이스 연구소를 통해 지역의 마이스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민간기업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꾸준히 수립해나가고 있다. 또한, 지역 마이스산업협회를 구성해 마이스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하는 일도 빼놓지 않고 챙기고 있다.

송형호 기획이사는 “각 지자체마다 컨벤션센터가 설치되는 등 마이스산업과 관련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의 인프라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에서 경북지역의 전시시설과 관광자원 등을 함께 묶는 네트워킹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각



△아이엠샘넷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송형호 기획이사

지자체마다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구의 경우 EXCO는 전시시설 위주로 순기능을 강화하는 대신, 나머지 부분은 민간에 개방한다면 분명히 EXCO와 민간기업이 함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EXCO가 힘들면 지역의 마이스산업과 민간기업 모두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올해 세계에너지총회와 2015년 세계물포럼 등을 통해 의료관광의 메카인 메디시티 대구를 어떻게 알려나갈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구라는 도시브랜드를 어떻게 알려나갈지에 대한 나름의 고민도 잊지 않고 있다.

“지역 마이스산업을 대표하고 이끌어나가는 아이엠샘넷, 해외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내는 아이엠샘넷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십시오.” 아이엠샘넷 가족들의 각오다.

글 | 배준수 취재팀장





대구광역시의사회 기획이사

# 손창용

질은 남색의 수술복도 벗지 않은 채 인터뷰에 응한 그는 "6월에 있을 대구의료관광전 준비 때문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면서 활짝 웃었다. 천생 외과의사이자, '메디시티 대구'를 위해 발로 뛰는 모습 자체였다.

대구시의사회에서 3년간 공보이사로 활동하고 나서 다시 기획이사로 맹활약하고 있는 손창용(47) 부강외과의원(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원장의 이야기다. 그는 병원 한쪽 면을 가득 채운 책장을 열어 2천여 권의 손수 읽은 책들을 가장 먼저 보여줬다. 대구지역 의사회 4천800여 회원의 '입' 역할(공보이사)을 훌륭하게 치러냈던 그의 이력 뒤에는 '책벌레'라는 꼬리표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 천생 외과의사, 의료특별시 대구 전도사

## 소통(疏通)하다

손창용 기획이사는 2009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대구시의사협회 공보이사를 역임했다.

대구시민들, 그들의 귀와 눈이 되는 언론, 의사회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의료현실을 알리고 제도에 반영해 대구시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 소통의 매개체였다. 2009년 직접 쓴 메디시티 출범식의 구호와 선언문이 시민들로부터 낭독될 때 깊은 책임감과 전율을 느꼈다는 손 이사. 신종플루가 덮쳤을 때 대구시와 의사회, 지역 언론사가 합심해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데 있어 매개체 역할을 해 무사히 넘기고서야 자신의 일에 뿌듯함을 느꼈다고 했다.

현재는 기획이사로서 의사회의 의료봉사와 자선음악회, 대한의협의 선서기획단, 대구시와 공조하는 의료 관련 사업 추진, 대구시 의료계를 대표하는 선진화포럼 등 대외적인 사안들을 기획·구상하고 실행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손 이사가 이처럼 원활한 소통을 하게 된 데에는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 공부하고 책 읽고 글 쓰는 일이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어떻게든 환자를 구하는 미다스의 손이 돼야 한다는 강박증에 갇힌 상태에서 공부했으나, 개업을 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했다.

매사에 부족함을 인식하고 자신의 오만함과 철없음을 인정했고, 책임기와 글쓰기를 통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맞고 있다. 손 이사의 겸손이 이어졌다. “학생 시절부터 꾸준히 해온 독서가 조금 나은 글재주를 주었고, 소통을 하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 나는 외과의사다

손 이사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기를 가장 충실하게 배울 수 있고, 응급상황 발생 때 가장 먼저, 핵심의 위치에서 진두지휘하는 참병의 역할을 하는 외과라는 학문에 매력을 느꼈다고 했다.

밤낮을 바꿔가며 응급실과 병실의 환자를 돌보는 등 혹독한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됐을 때가 그랬고, 전공의 4년차 시절 대정맥 파열 응급수술을 비롯해 첫 번째 암 수술, 첫 번째 콩팥이식수술 등 수술실에서 최후의 결정권자가 돼 스스로를 이겨내며 죽음의 문턱에서 환자들을 건져냈을 때 외과으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1994년 일본에서 열린 혈관외과 국제학회에 지도교수도 없이 혼자 가서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며 받은 격려와 칭찬을 발판삼아 평생을 혈관분야의 외과에 바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 메디시티 대구를 위하여

대구 신성장동력이 될 메디시티 대구 만들기에 앞장서 온 손 이사는 그간의 성과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성공을 위한 조언을 하는데 더욱 조바심을 냈다.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높은 땅값과 정주 여건을 개선해 대기업과 우수한 연구인력들을 유치하는 일에서부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항접근성 개선, 인력부족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친절 문제 등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별 특성에 맞춘 특화를 이뤄내지 못하는 대구시에 대한 원망 아닌 원망도 털어냈다. 더불어 대구의 응급의료 선진화를 위한 조건도 빼놓지 않았다. 응급의료의 주축이 되는 외과나 흉부외과를 전공하는 의사들이 부족하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수가 구조로는 불가능한 중증외상센터 운영 등의 문제를 이야기했고, 대구시가 최근 내놓은 지역응급의료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중증의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선행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손 이사는 “올해에도 메디시티 대구 사업 등 대구시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대구시의사회의 외국인과 노숙인 진료 등 의료봉사사업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의학공부와 지식의 외연을 넓혀나갈 것이고, 시간과 여유가 허락한다면 동양사상의 원류를 더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고 올해 계획을 말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메디시티 대구를 정말 사랑하는, 외과학을 평생의 업으로 삼은 진정한 외과의사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글 | 배준수 취재팀장 · 사진 | 김원현 기자





## 태권도로 독도 사랑 펼친다 한창현 대구시태권도협회 부회장 겸 전무이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익숙하기까지하다. 그 익숙함은 우리들의 경계심까지 누그러뜨리기도 한다. 그 가운데 우리의 전통무예를 통해 '다케시마'가 아닌 '우리땅 독도'를 외치는 이들이 있다. 대구시태권도협회가 그 주축이다. 한창현(54) 전무이사로부터 태권도를 통한 나라사랑법을 들어봤다.



**Q** 1월 13일 TBC 태권도 왕중왕대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가졌다.

A. 협회 임원들과 선수, 일선 체육관 관장과 사범, 대회 참가 선수와 지도자 등 3천여명이 참여하는 '독도는 한국땅! 플래시몹' 행사를 했다. 관중석과 중앙무대를 가득 메운 태권도인들이 독도는 우리 땅 음악에 맞춰 태권체조를 선보인 것이다. 호응이 뜨거웠다.

**Q** 행사를 마련한 계기는.

A.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독도의 영토주권을 확고히 되새기고, 우리것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마련했다. 1972년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된 이후 4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해왔으며, 국가적으로나 사회적, 또는 태권도인 개인적으로도 큰 수혜자인 만큼, 태권도인들이 행동으로 나라를 위한 일에 앞장서는 것이 순리이고 도리라고 생각해 이 같은 행사를 계획했다.

**Q** 장기적인 행사인가.

A.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과 함께 세계 각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국내 1만여 태권도장에서 매일 수련시간을 통해 '독도는 한국땅!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실시해 태권도를 수련하는 전국의 1만여 아동·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독도에 대한 주권의식을 갖게 할 것이다. 더불어 국기원 소속 해외 파견 사범들에게도 특별교육을 실시한 뒤 세계 각국의 8천만여 태권도인을 대상으로도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경북도와 합의를 해둔 상태다.

**Q** 저출산과 수천명씩 배출되는 태권도 전공자 등으로 인해 태권도장이 불황인데, 플래시몹 퍼포먼스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A. 물론이다. 태권도인들이 나라사랑에 앞장서고, 그와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다보면 태권도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고 호의도도 상승할 것이다. 도장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 보다는 태권도인들의 국가와 독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보이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다.

**Q** 올림픽 이야기다. 오는 9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태권도의 올림픽 핵심종목 잔류 여부가 결정된다. 올림픽 퇴출설, 핵심종목 결정설 등 의견이 분분하다. 지역 태권도인들의 바람은

A. 태권도 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비상이다. 여기에 다 언론이 태권도가 이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앞다퉈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향도 있는 게 사실이다.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국제대회에 다년간 참석해 해외사정에 밝다. 런던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 해외언론들은 깔끔한 승부에 흥미진진한 경기라고 극찬한 반면, 국내 언론은 판정시비와 재미없다는 평가만 내놓지 않았는가. 올림픽 종목에 우리말로 풀어 나가는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해법들을 국가와 언론,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염원하기를 우리 태권도인들은 바라고 있다.

**Q** 2011년부터 16개시·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역할은 무엇인가.

A. 전무이사협의회 회장과 더불어 도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여러가지 요인으로 불황에 빠져있는 도장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심사제도와 관련해서도 기존 관례의 틀을 깨고 현장 지도자의 목소리들을 제도 속에 담아내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다.

**Q** 2013년 한해 소망과 계획은.

A. 지난해 대구시태권도협회는 20년만에 대구에서 전국체전을 준비해 명품체전, 성공대회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들었다. 1981년 대구협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전국체전 우승이라는 금자탑도 쌓았다. 태권도인들이 푹푹뭉쳐 이뤄낸 결과다. 올해는 5월에 있을 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독도 플래시몹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라사랑을 실천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민들이 태권도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과 홈페이지 개편을 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글·사진 | 김원현 기자

경영저널은 단순하게 맛집을 소개하는 수준의 전면 일률적인 음식점 정보를 뛰어넘어 고객, 독자의 입장에서 맛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수준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음식명가(飮食名家)' 연재를 시작한다.

지역의 대표적인 기획재정부 소관 학술연구기관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서 지표로 제시한 서비스 품질 측정방법을 활용해 평가를 실시했다.

시설과 의사소통 등 서비스의 평가를 위한 외형적인 단서인 '유형성'을 비롯해 서비스의 철저함 등 약속된 서비스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인 '신뢰성',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응답성',

직원의 능력과 예절 업체의 신용도, 안정성 등을 뜻하는 '혁신성', 접근가능성과 고객에 대한 이해 등을 내포한 '공감성' 등 5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겨 평가를 했다.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으면 별(★) 5개, 80점~89점은 별 4개, 70점~79점은 별 3개, 60~69점은 별 2개, 60점 미만은 별 1개를 부여 했다.

경영저널 선정 음식명가 1호에는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위치한 자연산 불락세꼬시·해산물전문점 '싱싱회'가 선정됐다.

## 작은 서비스부터 100% 실천, 자연산 맛으로 고객만족도 최고! 자연산 불락세꼬시·해산물전문점 '싱싱회'

★★★★★



##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

‘싱싱회’의 유운선 사장은 ‘한 번 찾은 손님은 꼭 기억한다’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다. 이는 곧바로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교육으로 이어진다. 기본적인 화장실과 수족관 청소부터 매시간 점검을 하고, 친절과 서비스 정신으로 재무장한다.

‘유형성’에 있어 ‘싱싱회’는 매장환경과 실내인테리어가 깨끗하고 종업원들의 복장도 단정한 것으로 평가됐다. 주문한 음식이 신속하게 나오고 불편에 대한 조치가 빠르며, 주문순서가 잘 지켜지는 동시에 음식의 맛과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등 ‘신뢰성’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또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고객의 취행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응답성’에서도 고른 점수가 나왔고, 직원들이 친절하고 메뉴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갖춰 ‘확신성’에서도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공감성’ 분야에서는 가격대가 합리적이지만, 손님이 기다릴 경우 대기시간을 알려주거나 다양한 할인혜택을 먼저 설명해주는 서비스에서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싱싱회’는 유형성에서 18점, 신뢰성에서 20점, 응답성 20점, 확신성 19점, 공감성 16점 등 100점 만점에 총 92점을 받았다. 별 5개로 최고 등급이다. 이처럼 ‘싱싱회’는 기본적인 맛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서비스품질이 월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운선 사장은 “10여년 전 황금동에서 문을 열어 지난해 7월 수성못 인근 두산동에서 확장했는데, 10여년 전부터 인연을 맺은 단골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주고 있다.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란 신념을 갖고 식당을 운영한 보람을 느낀다”며 활짝 웃었다.

## 자연산 옹고집

‘싱싱회’는 자연산 활어만 고집한다. 도심에 찌든 단골손님들에게 바닷내음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매일 남해 앞바다 사랑도와 미조항에서 낚시로 건져 올린 불락과 돌문어를 공수해 와 손님들에게 내놓는다.

눈이 크고 맛이 일품인 불락을 빼빼 선 세꼬시와 수



분을 머금은 채 야들야들하게 익은 돌문어 숙회는 ‘싱싱회’의 인기 메뉴다. 10여년간의 연구를 통해 탄생시킨 ‘싱싱회’만의 특제 양념소스는 불락회와 돌문어 숙회의 맛을 한층 더 높여준다.

싱싱한 해산물도 푸짐하다. 참소리와 산낙지, 돌멍게, 개불이 그렇고, 섬진강하구에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에서 나는 벗굴, 사포닌이 다량 함유돼 바다의 인삼이라 불리는 홍삼은 별미 중의 별미로 꼽힌다. 특히 숙취해소에 좋기로 유명한 다슬기(대사리)도 인기 상종가 메뉴에 올라 있다. 이밖에 산곰장어구이와 산곰장어볶음밥, 회비빔밥도 점심과 저녁식사 메뉴로 꾸준히 호응을 얻고 있다.

불락세꼬시는 5~7만원, 잡어회 5~7만원, 돌문어 3~5만원, 해산물모듬 3~6만원, 산곰장어 3만5천~4만5천원이다.

글·사진 | 김원현 기자



- 주 소 :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69-1번지
- 연락처 : 053-762-0010





# 뽑는데 1초, 자라는데 20년

1톤의 종이컵을 만드려면 20년생 나무 20그루를 베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구에서는 1초마다 축구장 만한 면적의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무심코 한 번 쓰고 버린 종이컵,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돌아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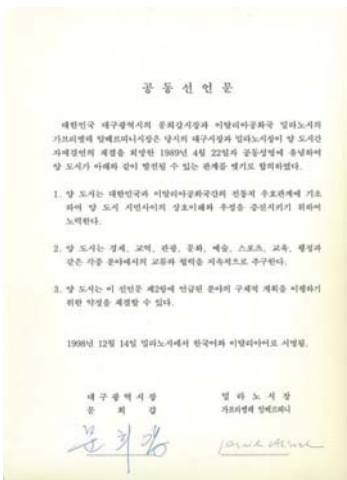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협회의

# ‘대구-밀라노 자매결연’ 거짓말 논란 확산

## 대구시 자매결연 체결 주장 근거 부족, 시민 비난 확산 시민단체 “의회가 조사위 구성해 진실규명해야”

대구시가 지난 15년간 홍보해 온 이탈리아 밀라노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언론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매결연 체결이 사실인 것처럼 밝히고 있어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로부터 더욱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1998년 12월14일 밀라노시청에서 문희갑 대구시장과 가브리엘레 알베르티니 밀라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졌다고 15년간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이후 대구시는 자매결연 체결 사실을 토대로 지역의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첨단화를 추진하겠다고 밀라노프로젝트를 마련해 사업 예산 8천700여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밀라노프로젝트 추진의 원동력이 된 대구시와 밀라노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2011년 12월 해외자매도시들과의 교류형태 재정립과 강화를 하기 위한 확인과정에서 밀라노시측에 교류활동을 활발히 하자는 요청을 했고, 밀라노시측은 지난해 8월 “공식적으로 대구와 밀라노는 자매도시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1998년 체결한 협정서는 자매결연 체결을 희망하는 의향서일뿐이며, 대구시와는 잔여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식적 자매도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1998년 12월14일 문희갑 대구시장과 가브리엘레 알베르티니 밀라노시장이 서명한 공동선언문. 이 공동선언문이 작성된 이후 대구시가 잔여절차를 밟지 않아 밀라노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공식적으로 두 도시가 자매도시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구시 제공

실제로 밀라노시 홈페이지에도 대구시는 해외자매도시 명단에 올라와 있지 않다. 이는 당시 문희갑 시장과 알베르티니 밀라노시장의 우호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자매결연이 체결됐다고 해석해버린 탓이다. 이 같은 잘못된 내용은 대구시교육과학연구원이 발행한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탐구 보조교과서인 ‘대구의 생활’에 버젓이 실려 자매결연이 마치 이뤄진 것처럼 교육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2월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것처럼 허위보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5년간 대구시민들을 속여 온 대구시의 행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대구시는 국제적 행정관례 이해부족에 따른 행정미숙 등의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한 억지주장으로 일관하며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않은 것을 인정했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1998년 밀라노시장이 보내온 ‘자매결연 체결 희망’ 서신 한장을 근거로 자매결연 미체결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서 사태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밀라노시가 자매결연 도시가 아니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대구시가 반박 자료를 냈지만 근거가 약했다. 대구시의회는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자매결연 논란의 진상을 밝혀야 하고, 책임자는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도 “그동안 대구시가 ‘밀라노 프로젝트’에 각종 예산을 투입했지만 허위로 드러난 만큼 시민에게 사죄하고, 사태를 수습해 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글 | 김원현 기자

# “스마트한 도서 대출과 반납, 달서구에서만 가능합니다”

## 도서관 도시 대구 달서구청, ‘책드림’ 서비스 시행

‘누구나 걸어서 10분 내에 도서관을 찾고,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도시’로 유명한 대구 달서구가 ‘책드림(Dream)’ 서비스를 본격 시행,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대구 달서구청의 책드림서비스 시행으로 상인역과 용산역에서 무인도서예약대출과 반납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달서구청 제공

책드림 서비스는 지하철 역사 내 무인도서예약대출·반납, 구립 및 공립 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 서비스,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합한 서비스를 말한다.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도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책을 배달해주고, 이를 통해 책과 함께 꿈과 희망을 전달해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달서

U-도서관’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통해 원하는 도서를 예약하면 지하철역(상인역, 용산역)이나 구립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도서관정보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달서구립도서관 도서회원이면 누구나 지하철 상인역과 용산역에서 역사 폐관시까지 무인도서예약대출·반납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상호대차서비스의 경우 온·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해 이용자가 더욱 손쉽게 타관도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달서구지역 4개 구립도서관(도원·달서어린이·본리·성서)에 소장된 대출 가능 도서이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대출은 한 번에 2권까지 가능하다. 도서관 간 상호대차의 경우 대출기간은 15일(3권)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서비스인 ‘달서 U-도서관’ 애플리케이션은 달서구립도서관 도서회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E-book(3천500여종) 대출·열람, 도서관 행사 안내, 신착도서 및 인기도서 안내, 자료 검색, 「책드림 서비스」 등 다양한 전자 정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책을 가까이할 수 있고, 도서관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해 ‘책 읽는 도시, 지식의 요람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리 | 김원현 기자



## 대구 수성구청, 여성친화도시 원년 선포

여성친화도시 추진단 등 여성친화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시행



△ 수성구 여성정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 회의를 갖고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수성구청 제공

지난해 11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대구 수성구가 올해를 '여성친화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여성 관련 사업과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 수립과 발전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혜택이 남녀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과 도시를 말한다.

수성구는 먼저 오는 3월께 여성친화도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중 'ROSE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여성친화도시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ROSE'는 구화(區花) 장미에서 착안한 것으로, 새로운 도약(Renew), 여성의 사회참여율 제고(Organization), 안전(Safe), 여성의 권익향상(Empowerment)을 의미하는 수성구의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다.

이와 더불어 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보육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30%로 끌어 올리고, 만 0~5세 영유아 전면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보육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도 70곳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 5월에는 파동문화센터 건립을 발주하고 만촌1동 주민센터 이전과 함께 '만촌 문화센터' 건립도 본격 추진하는 등 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해 여성들의 여가 선용과 건전한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올해는 여성친화도시의 원년으로 손색없는 역점시책을 추진하면서 복지·문화 확충 사업도 잘 마무리해 주민들이 행복한 살기 좋은 수성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리 | 김원현 기자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www. **KEPI** .or.kr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기관

한 | 기 | 연



한국정책리서치는 공적가치 실현을 위해  
맞춤형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입니다.

[www.caai.kr](http://www.caai.kr)

한국정책리서치는 2006년 설립 이래  
100여 개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정책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연구를 수행한 전문 조사기관입니다.

#### 주요사업

- 사회여론조사
- 행정만족도조사
- 고객만족도조사
- 선거 및 공론조사
- 기업이미지조사
- 마케팅조사
- 광고효과조사
- 기타 여론조사

#### 재단법인 한국정책리서치

본 원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427-6 2F 203호  
Tel) 054-823-2829 Fax) 054-823-2828  
대구지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38-3  
Tel) 053-721-6757 Fax) 053-766-0379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힘은 그 무엇보다도 빠르게 전달됩니다.  
가족, 직장동료, 아이들에게...

53만 시민 모두가 행복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감사운동**

이제 대한민국이 함께 합니다.